



발간년월 2019년 07월(제9호) 발행처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주 소 (25798) 강원도 동해시 공단1로 177 자유무역지역관리원 3층
자료문의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물류연구기획팀 담 당 센터장 총 괄 이사장 Tel 033-522-6503 Fax 033-522-6505



NLRSC

Monthly Newsletter vol. 09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시계탑

제1회 아름다운 동해시 사진 전국 공모전 수상작

Contents

● 나침반

- 한·러 해운항로 활성화 핵심은 "통관제도 개선"이다.

● 동해·묵호항 주요 이슈

- 동해시·블라디보스톡시 교류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 일본 현지에서 '동해·묵호항 세미나 in OSAKA' 개최

● 항만·물류 통계 동향

- 강원영동지역 산업단지 생산지표

● 항만·물류 정책동향

-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시범사업 협약 체결

● 주변국 국제동향

- 러시아 동향

■ 한·러 해운항로 활성화 핵심은 “통관제도 개선”이다.

2020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중국과 러시아간 수교 70년, 북한과 러시아간 수교 71년에 비하면 짧은 역사라 생각되지만 수교 이후의 양국의 교역량이나 교류 활동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그 중심에 해운항로가 있었다.

항공운송의 경우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운항하는 국내외 국적 항공사는 대한항공, S7, 오로라 항공을 비롯한 10여 개 사가 운항하고 있으며, 해운항로의 경우는 컨테이너선, 카훼리 선사가 부산항, 포항영일만항, 동해·묵호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중심에 동해항과 블라디보스톡 항만 간을 주 1항차 정기 운항하는 이스턴드림호가 있다. 그동안 동해항은 장금상선, MCC 등 컨테이너 정기항로의 운항경험도 있었으나 현재는 항만과 배후인프라 부족, 물동량창출의 어려움, 정시성 부족, 통관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중단된 상태다.

예컨대 북방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대 장애요인으로 통관제도 개선을 기업들은 지적하고 있다. 통관문제가 이슈로 등장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문제해결의 인식은 그동안 강원도와 동해시가 동북아지사성장회의(24회), 환동해권거점도시회의(25회)시 수많은 논의과정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답보상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시간은 걸리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운송사와 화주의 현장목소리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한·러 해운항로 활성화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지 필자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여 북방 교역활성화 도움이 되고자 한다.

통관상 문제의 경우 현지 진출 대기업의 주요 화주는 통관의 투명성(White 통관)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Gray 통관을 요구하는 사례를 지적하고 있으며, 둘째, 러시아는 전체 통관시스템이 일원화되었으나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통관시스템 연동부족으로 인한 실시간 정보 공유 부족 및 관련 제도 불일치 사례(중앙정부 통관 규칙과 주정부 통관 규칙이 상이)가 있으며, 셋째, 복잡한 통관 및 항만 행정 등으로 야기되는 물류의 끊김을 호소하고 있다.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가 아닌 통과 화물의 경우에도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인 화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서류를 10개 이상 요구하여 통관 지연 외에, 상품 훼손, 추가 검사 비용 등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넷째, 세관신고금액 불인정 및 세관자체 Guideline 가격 적용이 빈발하다는 것이다. 법인이 자체적으로 신고한 가격을 불인정하여 세관 자체 Guideline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관세 과다납부로 인한 Cost 증가, 부가세 과다납부로 인한 Cash Flow 추가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도 많은 통관상의 문제에 대해 기업들은 애로를 호소한다. 이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러시아 극동지역 세관의 특성 상 담당자의 재량권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사전에 통관 구비 서류(B/L, 인보이스, 동물검역서, 식물검역서 등)를 준비하고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One-Stop 물류 서비스가 요구된다. 과다한 국경통관 시간이 감소하고 물류처리능력이 증대돼야 한다. 세관 당국은 물론 CIQ기관 간 정례화된 회의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항과 자루비노항 등을 비롯한 주요 항만들의 전자신고제도의 제도적 보완과 통관 업무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져 한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관세행정이 요구된다. 당면한 현안과 항만 간 컨테이너 하역 장비 투자, 열악한 터미널 개선 등 기초 물동량 창출을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관 및 행정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Update 및 정보 제공, 기업 진출 지원 플랫폼 구축, 세관 당국 간 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 세미나, 워크숍 등 정부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는 동해항이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을 활용하여 중국 동북 2성, 시베리아 내륙지역, CIS 및 유럽 동부지역 등 광역 배후지역과 막힘없는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전략을 수립하는 이유일 것이다.



엄 광 열 경제학박사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장

동해·묵호항 관련 주요이슈

동해시-블라디보스톡시 교류 10주년 기념 행사 개최

■ 남북경협 활성화 시 러시아와의 비즈니스 수요 증가 예상

지난 6월 11일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동해시와 블라디보스톡시의 교류 10주년 기념’과 ‘동해·묵호항 설명회’, ‘한-러 기업 간 B2B’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환동해권 경제중심항인동해항을 기점으로 둔 정기 여객선 취항 10주년과 더불어 동해시와 블라디보스톡시와의 교류 10주년을 기념하고, 러시아 중소기업협회 및 비즈니스 스쿨 회원사와 도내 수출입 희망기업을 초청하여 항만설명회 및 B2B를 통해 동해·묵호항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는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심규언 이사장(동해시장)과 블라디보스톡시 부시장,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 대리, KOTRA 무역관장, 러시아 중소기업협회 연해주지부 회장, 블라디보스톡 청년기업 비즈니스 스쿨 회장 등 많은 인사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강원도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대표하는 기업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OPORA RUSSIA 및 ROST 회원사들은 최근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한국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러시아와 분야별 비즈니스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대감과 더불어 지속적인 한-러 포럼 행사와 연계해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러시아 중소기업협회 OPORA RUSSIA 연해주지부, 블라디보스톡 청년기업 비즈니스 스쿨 ROST 간에 한-러 기업인들의 문화교류를 통한 양국 간 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와 KOVLRU Eastmarine 간의 동해항을 활용한 수출입 기업 발굴과 한-러 기업들의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B2B에서 20만불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얻었다. 수출은 오는 8월에 첫 선적이 이뤄질 예정이다.



동해시-블라디보스톡시 교류 10주년 기념 행사

■ 한-러 기업 간 문화교류를 통한 산업 및 경제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해시·블라디보스톡시 교류 10주년’ 행사에서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엄광열 센터장, 러시아 중소기업협회 <OPORA RUSSIA> 연해주지부 구메늉 비탈리 바실리에비치 지부장, 블라디보스톡 청년기업 비즈니스 스쿨<ROST> 시카루파 예브게니 비탈리에비치 회장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은 각 당사자 간의 역할 증진 및 한-러 기업인들의 문화교류를 통해 양국 간 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양 지역 간 정기적 발전과 효과적 협력을 위한 문화교류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3자 간 산업 및 경제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 수출입기업 발굴 및 한-러 기업인들의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제3자 간 업무협약식에 이어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엄광열 센터장, <KOVLRU Eastmarine> 문상연 대표와의 업무협약이 이어졌다.

이 업무협약은 강원도와 러시아 간 동해항 활용 수출입 기업의 발굴과 민간 및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제, 관광, 무역 교류협력으로 상호간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KOVLRU Eastmarine> 문상연 대표는 이번 행사에서 블라디보스톡 미용헬스기기 수출입 기업인 Health Care Total과의 20만 불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큰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와 KOVORU Eastmarine 간 업무협약

KOVORU Eastmarine과 Health Care Total과의 20만불 수출계약체결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일본 현지에서 ‘동해·묵호항 세미나 in OSAKA’ 개최

■ 한·일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환동해권 항로 구축 및 물동량 확대 변화 기대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이사장 심규언)에서는 6월 18일(화) 일본 오사카에서 일본 현지 항만과 물류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 종사자 약 70여명을 대상으로 동해·묵호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물류연구기획팀장 정동훈 박사와 DBS 크루즈 웨리 강승민 부장, LOTOS 이나게 토시미츠 오사카 지점장, 교토마이즈루항진흥회 니시야마 히로키 전무이사, 사카이미나토무역진흥회 모리타 도요미츠 전무이사 등이 각 지역과 항만 현황 및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동해·묵호항 세미나 in OSAKA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물류연구기획

팀장 정동훈 박사는 ‘동해항의 현황과 동해시의 전략’을 주제로 동해항의 주요 경쟁력과 동해항 3단계 계획, 동해시의 항만 물류 관련 주요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발표하였다.

DBS 크루즈 페리 강승민 부장은 ‘DBS의 주요 현황’을 주제로 현재 DBS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요 취급 화물 및 화물 취급방법, 운송방법, 항로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일본 현지 항만물류 관련 업체인 LOTOS(오사카지점)와 교토마이즈루항진흥회, 사카이미나토무역진흥회에서 ‘LOTOS 기업 소개 및 현황’, ‘교토마이즈루항의 우위성’, ‘동북 아시아 게이트웨이를 목표로(사카이미나토)’ 등의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엄광열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장은 “북방물류 및 환동해권 항로 활성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 등 국가별 협력도 중요하지만 강원도와 동해시, 교토부, 돗토리현, 마이즈루시, 사카이미나토시 등 지자체별 협력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으며, “일본 항만 물류의 메카인 오사카 현지에서 동해·묵호항의 경쟁력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영광”이라며 감사와 축하인사를 전했다.

본 행사는 환동해권 주요 항로를 이용 중인 일본 오사카, 마이즈루, 사카이미나토 지역 주요 업체들과 일본 서안 항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물동량 확대, 화주 유치 등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장이 되었다.

당일 세미나는 일본 교토부 항만국장 참석을 비롯한 일본해사신문 등 현지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으며 세미나를 참석한 일본 측 관계자는 환동해권역에서 서로 경쟁관계라고 볼 수 있는 교토마이즈루항만과 사카이미나토항만 그리고 동해·묵호항만 관계자가 모두 참석하여 홍보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이례적인 행사라고 언급하였다.

센터 관계자는 각 항만 간의 우수한 부분은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공동 물동량 창출과 상생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오늘 참석한 모든 항만 관계자들의 뜻이 반영되어 세미나가 개최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향후 센터에서는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동해·묵호항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 양국의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환동해권 항로 구축 및 물동량 확대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영동지역 실물경제동향

■ 국가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 생산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¹⁾

한국은행 강릉지역본부에서 발표한 '강릉영동지역 실물경제동향(2019년 5월)' 자료에 따르면 최근 강원영동지역 실물경제는 전년동월대비 어업 생산이 증가하고 건설활동이 확대된 반면 제조업, 서비스업 및 소비는 부진하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4월 발생한 산불로 인해 강원영동지역의 관광객의 감소와 소비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그 중 2019년 2월 중 강원영동지역 국가산업단지(북평국가산업단지) 입주 제조업체의 생산활동은 전년동월대비 약 5억 원 가량 감소한 27.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계 관련 업종의 생산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약 14.7% 감소하였으며, 가동률은 75.3%로 전년동월대비 2.4%p 증가하였다.

한편 2018년 4/4분기 중 일반산업단지(강릉과학산업단지)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85.1% 증가하였으며, 2018년 3/4분기 이후 꾸준한 회복세로 전기 대비 46.5% 증가하였다.

강원영동지역 국가산업단지 생산지표

(단위 : 억 원, %, %p)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연간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생산량 ¹⁾	384.9 (77.7)	34.1 (125.6)	30.7 (42.5)	32.7 (39.6)	25.7 (-24.6)	24.8 (-19.0)	27.9 (-14.7)
가동률 ²⁾	76.8 (-10.4)	76.2 (-8.6)	71.7 (-1.7)	72.9 (0.2)	72.0 (-4.3)	71.7 (0.0)	75.3 (2.4)

주 : 1) 북평산업단지기준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2) 가동률의 () 안은 %p를 의미함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영동지역 일반산업단지 생산지표

(단위 : 억 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연간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생산량 ¹⁾	3,600 (61.8)	397.3 (-71.6)	456.4 (-67.4)	488.2 (-65.1)	502.0 (24.6)	735.3 (85.1)

주 : 1) 강릉과학산업단지 기준, 자료는 분기별로 공개,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1) 한국은행 강릉지역본부, 강원영동지역 실물경제동향(2019년 05월)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시범사업 협약 체결²⁾

■ AMP로 항만지역 미세먼지의 주 요인인 선박 배출가스 감축

해양수산부는 26일 항만공사 선사 터미널운영사와 ‘육상전원공급설비³⁾(AMP) 시범사업’의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AMP는 정박 중인 선박에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장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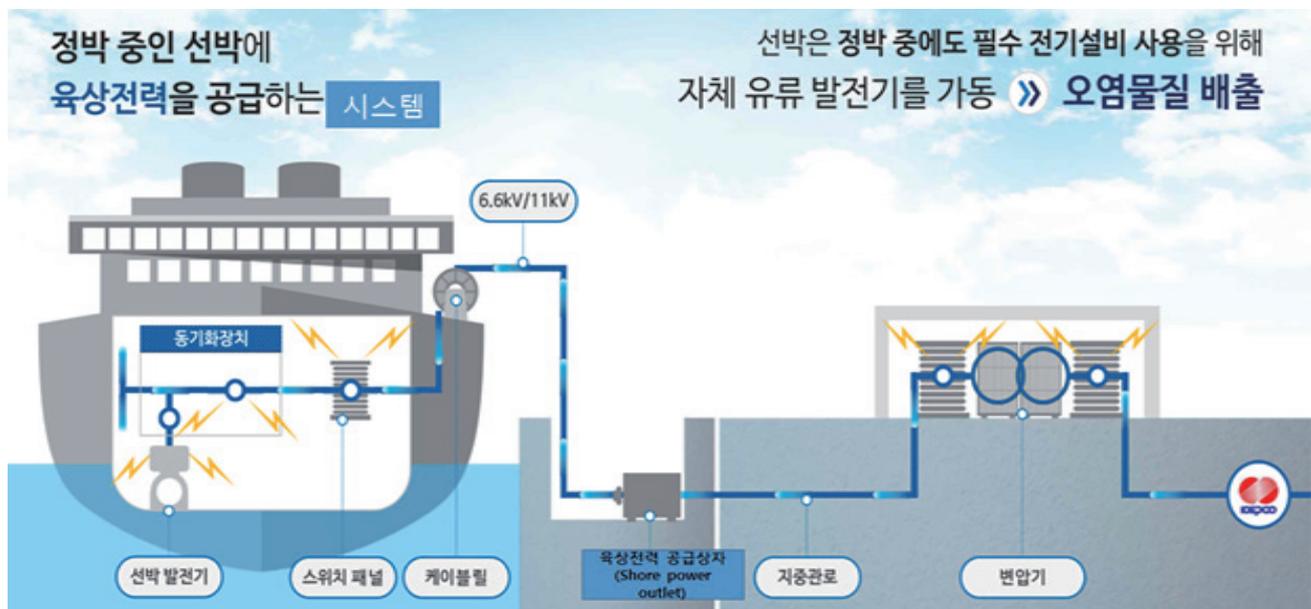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가 항만도시 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해수부는 지난해 8월부터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총 8개 선석에서 AMP 설치사업을 착수했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항 4선석, 인천항 2선석, 광양항 2선석이다. 또 2021년 말까지 12개 항만, 총 40개 선석에 AMP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내년 1월 8선석의 AMP 운영을 앞두고 항만공사 선사 터미널운영사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 협약 체결식을 갖게 됐다. 이번 협약에는 해수부와 항만공사(부산, 인천, 여수광양), 선사(연운항훼리(주), MSC코리아(주), 한국머스크(주), 현대글로벌(주), 현대상선(주)), 터미널운영사(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주), 피에스에이현대부산신항만(주),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등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수부와 협약기관은 내년 1월부터 2년간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을 대상으로 AMP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항만공사는 올해 12월 말까지 AMP 설치를 완료하고, 선사는 선박에 수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협약서에는 AMP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여선사에 대한 혜택사항과 AMP의 최소이용기준을 함께 규정했다. 해수부는 시범사업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가 부산항 68t(부산시 배출량의 2.7%), 인천항 7t(인천시 배출량의 0.3%), 광양항 4t(광양시 배출량의 0.18%) 등 총 79t이 감축될 것으로 분석했다.

해수부 오윤열 항만국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육상전원공급설비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개념도

2) 코리아쉬핑가제트, <http://www.ksg.co.kr/>

3) 육상전원공급설비(AMP : Alternative Maritime Power)란 선박이 항만에 정박 시 선내에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해 연료유(병커C유 및 경유)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설비를 말한다.

주변국 국제 동향

러시아 동향

동해·묵호항의 러시아 주요 수출입 품목

동해·묵호항으로부터 러시아로 수출되는 주요 품목은 자동차·장비·운송기기, 기타제품, 화학·고무제품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자동차·장비·운송기기 수출액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약 3,638만 달러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화학·고무제품은 약 767만 달러로 전년대비 메이커업, 기초화학제품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로부터 동해·묵호항으로 수입되는 주요 품목은 광물성 제품, 식료품·농수산물 원료, 목재, 종이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수입량 중 약 64%가량을 차지하는 광물성 제품은 전년대비 40% 증가한 약 42,101만 달러로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식료품·농수산물 원료는 대부분이 러시아 수산물로 전년대비 16% 증가한 23,703만 달러에 달했다.

동해·묵호항의 러시아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 천 달러)

구 분	수 출			수 입		
	2017년	2018년	증감율	2017년	2018년	증감율
식료품·농수산물 원료(1-24)	505	244	-52%	204,331	237,028	16%
광물성 제품(25-27)	26	5	-81%	300,858	421,014	40%
화학·고무제품(28-40)	2,662	7,668	188%	12	213	1,675%
피혁·가죽제품(41-43)	70	17	-76%	0	0	0
목재, 종이(44-49)	326	277	-15%	2,929	2,622	-10%
섬유제품, 신발(50-67)	535	528	-1%	0	0	0
금속, 금속제품(72-83)	336	485	44%	0	0	0
자동차·장비·운송기기(84-90)	30,652	36,379	19%	14	47	236%
기타제품(68-71, 91-97)	5,552	3,794	-32%	49	9	-82%
총 계	40,664	49,397	21%	508,193	660,933	30%

주) 동해·묵호항을 통해 수출입 되는 러시아지역은 극동러시아 지역임
출처 : 한국무역협회(kita)

‘프리모리에- I, II’ 운송회랑, 2019년 1사분기 무역량 전년동기대비 각각 2.7, 2배 상승⁴⁾

스베틀라나 우티아세바 극동 및 북극개발부 국제부 부국장은 하얼빈에서 진행된 제2차 러-중 국제협력포럼에서 극동지역의 대중국 무역이 2018년에 약 26% 성장했으며, 2019년 1사분기에 이미 21% 이상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프리모리에- I’ 운송회랑을 통한 무역량은 2,228TEU로 2018년 전년동기대비 2.7배 증가하였으며, ‘프리모리에- II’ 운송회랑은 1,000TEU 이상을 수송하여 2018년 전체 수송량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본 간행물 파일은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www.northernlogis.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극동·북극개발부 홈페이지, <https://minvr.ru/>

내용정정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월간동향 2019.06월 vol.8호의 인쇄과정에서 주변국 국제동향편 '극동러시아의 제1위 교역대상국'의 러시아 통계 자료에 2017년과 2018년의 수치가 동일하게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통계자료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 극동러시아의 제1위 교역대상국, 중국

4월 16일 코트라에서 발표한 '2018 극동러시아 교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극동러시아지역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교역액은 전년대비 26.1% 증가한 9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한국과의 교역액은 36.8% 증가한 97억 달러로 나타났다.

극동러시아의 국가별 교역 비중은 2018년 전체 교역액 중 중국이 28.4%, 한국이 28.2%, 일본이 19.2%를 차지하였으며, 수입부분은 중국이 53.5%, 한국이 9.0%, 일본이 7.9%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17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동러시아의 주요 국가별 교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7년			2018년			증감율(%)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중국	5,080	2,690	7,770	6,441	3,360	9,801	26.1
한국	6,138	967	7,105	9,158	564	9,722	36.8
일본	4,822	583	5,405	6,121	494	6,615	22.4
벨기에	2,364	13	2,377	2,313	32	2,345	-1.3
대만	392	40	432	851	41	892	106.5

출처 : 극동세관